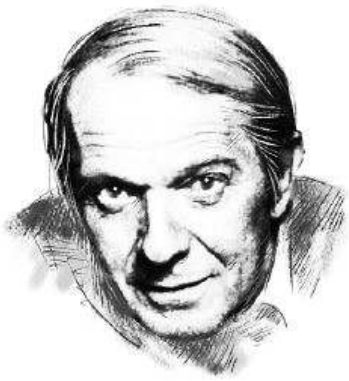
제1강 강의 계획 및『차이와 반복』소개

(1교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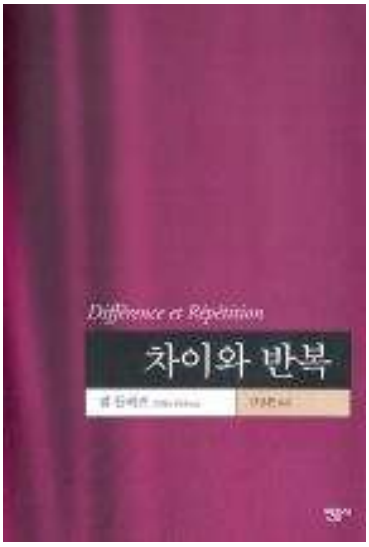
◆강의 계획 및『차이와 반복』소개
※학습목표: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강의의 개괄적인 계획을 살피고, 주 교재가 되는『차이와 반복』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사상가들을 알아본다.

▲『차이와 반복』
-시간, 무의식, 반복이란 주제는 『차이와 반복』2장에서 다루어진다.
-이는 주체에 대한 문제다.

*참고자료



Gilles Deleuze(1925~1995.11.4)프랑스 철학자



들뢰즈『차이와 반복』김상환역, 민음사, 2004 -본 강의에 쓰인 텍스트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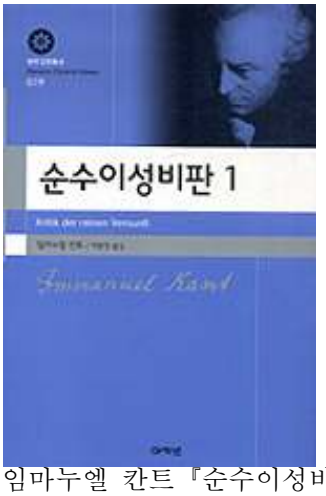
www.artnstudy.com

▲근대철학과 현대철학의 차이
-근대철학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주체를 실체적, 궁극적, 특권적이라 보았다. 반면 현대철학의 주체는 주어진 실체가 아니다. 오히려 시간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보았다. 이러한 차이는 두 시대 사이의 인간 특권과 주체의 위상에 대한 차이를 가져온다.
-둘을 나누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.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현대주체는 근대주체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실체론적이지 않다.

▲강의의 기본 줄거리
-서구에서 전개된 주체개념의 역사를 놓고서, 들뢰즈가 『차이와 반복』2장에서 전개한 주체론에 포인트를 맞추려 한다. 다만 『차이와 반복』만 읽는 것이 아니라 들뢰즈가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중요 철학자들을 함께 살피려 한다.
-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은 **니체, 프로이트, 베르그송**이다. 니체의 영원회귀론은 시간과, 프로이트는 인간 무의식과, 베르그송은 기억과 연관된다.

*참고
실제로 본 강의에서 들뢰즈와 함께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철학자는 칸트, 데카르트, 헤겔, 베르그송이다.

▲칸트와 종합synthesis
-칸트는 본격적인 의미의 경험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지각만으로는 안되고 지각이 우리의 주체성에 의해 구성/종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.
-사물을 감각한 후 혼란스런 그 파편들을 감성과 오성이 종합한다. 종합을 해야지만 비로소 안정된 지각과 명료한 판단이 가능하다. 이것이 칸트의 『순수이성비판』의 요체이고, 여기서의 종합이 본 강의의 기본 화두다.
-종합은 반드시 시간을 함축한다.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사건들이 종합되어야만 우리의 주체성이 제대로 작동한다. 이것의 칸트의 기본 발상이며, 본 강의 안에서의 논의 출발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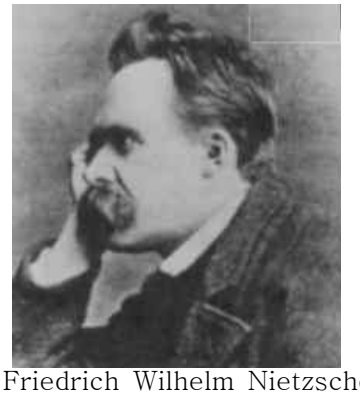
*참고자료


임마누엘 칸트『순수이성비판』박종현역, 아카넷, 2006

www.artnstudy.com

▲니체와 미래
-니체는 본 강의에서 미래와 연결된다. 니체는 또 반복과 연관된다. 회귀한다는 것은 반복이다.
-『차이와 반복』은 자체가 영원회귀론이다. 단적으로 말해서 차이와 반복은 니체가 벌려놓은 영원회귀론을 들뢰즈가 정리해 놓은 것이다. 차이는 힘에의 의지이고, 반복은 영원회귀라 볼 수 있다.

*참고자료


Friedrich Wilhelm Nietzsche(1844.10.15~1900.8.25) 독일 철학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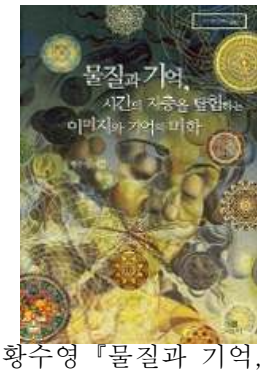
▲베르그송과 기억
-베르그송의 『물질과 기억』에서 나오는 기억론은 『차이와 반복』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특히 기억과 과거를 얘기할 때 그렇다.

*참고자료

Henri Bergson(1859.10.18~1941.1.4) 프랑스 철학자

www.artnstudy.com

베르그송『물질과 기억』박종원역, 아카넷, 2005



황수영『물질과 기억,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』그린비, 20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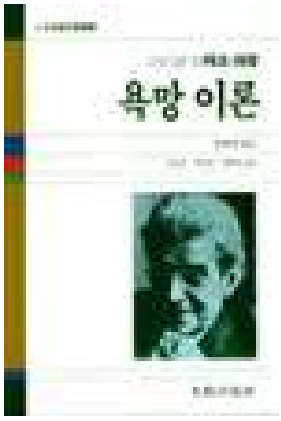
▲프로이트, 라캉과 죽음충동
-『차이와 반복』은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의 대결이다. 프로이트의 죽음충동 개념과 어떻게 대결하느냐가 이 책의 중요 화두다.

*참고자료

Sigmund Freud(1856.5.6~1939.9.23)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
자크 라캉『욕망이론』민승기역, 문예출판사, 1994

▲대자(對自)와 즉자(卽自)
-『차이와 반복』1장은 '즉자적 차이'이고 2장은 '대자적 반복'이다.
-즉자는 itself다.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의식을 뺀 모든 것이 즉자다. 헤겔의 표현으로 하면 부정의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식으로 나아가지 못 하는 것이다.
-대자는 자기 자신을 대할 수 있는 것이다. 자기를 대할 수 있는 것은 의식밖에 없다. 그래서 대자는 주체성, 자기의식이다.

www.artnstudy.com



▲반복되는 대상과 응시contemplate

「*반복되는 대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. 하지만 반복을 응시하고 있는 정신 안에서는 무엇인가 변하고 있다.*」

-A가 반복된다고 할 때, A는 그냥 A일 뿐이다. 그러나 A를 응시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 안에서 반복이라고 연결시킨다.

-contemplate는 그리스어의 thêoria, 영어의 theory다.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어떤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. 대상이나 자기 마음이 변하면 본질을 관조할 수 없다. 그러므로 thêoria는 대상의 동일성이 가만있고, 그 동일성을 응시하는 나도 가만히 있을 때, 그 둘이 보는 것이다.

-들뢰즈에게 있어서의 응시는 고전철학과 다르다. 순수의식noesis 단계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의식 이전 단계에서 사물을 만나는 것이다.

www.artnstudy.com